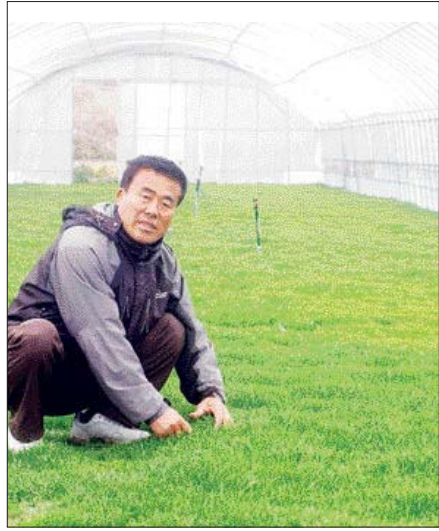


<25> 6개월간 만난 농업인 2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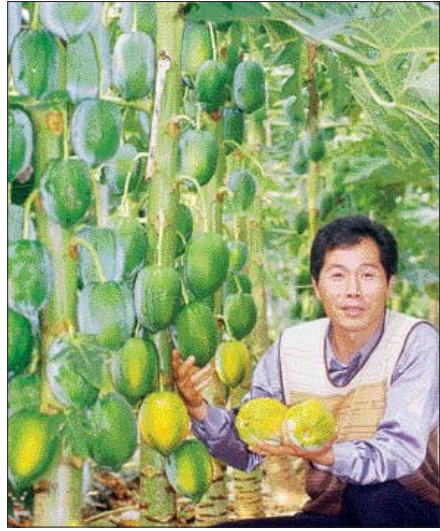
당신들의 땀방울에 농업의 미래가 영글어 갑니다



한무용(곡성·깻잎)
토종 농작물 특화



김경식(해남·세발나물)
새 대체작물 개발



정재균(곡성·파파야)
농업도 벤처처럼



김선일(순천·매실)
브랜드이미지 구축



박종석(나주·피망)
난방비 절반 줄여



최병진(강진·수국)
해외시장 개척

수입 농산물의 급증과 유통비, 농약·비료 값 상승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지역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6개월여간 시리즈를 통해 24명의 지역 농업인들을 만나 보았다.

작목 역시 딸기, 파프리카, 피망, 파파야를 비롯해 새싹채소, 아스파라거스, 깻잎, 애호박, 천년초(토종 선인장), 심비디움, 장류, 세발나물, 톨립, 수국, 대봉꽃감, 여주, 한우, 나비, 조경수 등 다양했다.

◇지역특화작물 경쟁력 제고=애호박이나 깻잎농사는 워낙 오래전부터 우리 식탁에 올랐던 채소류이다 보니 새롭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인들의 상식을 역적스런 광양·곡성 농업인들은 깨뜨리고 있었다.

광양시 진월면에서 애호박을 재배하는 김

선주(51)·김춘선(47)부부는 애호박에 비해 값 싸운 '인류 애호박' 농법과 파종시기를 9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누는 작법으로 남들 보다 한 발 앞서나가고 있다.

곡성군 목사동면 한무용(65)·조주실(55) 부부는 퇴비로 땅심을 키우고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재배로 고품질의 깻잎을 연중 생산하고 있다.

◇새로운 대체작물 발굴=‘세발나물’(갯개미자리)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바닷가, 염전 주변에서 자라는 ‘쓸모없는’ 잡초였다. 해남군 문내면 김경식(52)씨는 밭상의 전환으로 마을주민들과 함께 비닐하우스에서 이를 재배해 고소득작물로 변신시켰다.

토종 선인장인 ‘천년초’역시 가격등락이 심한 진도지역에서 대체작물로 기대를 모으

고 있다. 진도군 임회면 박승준(65)씨는 30여 농가와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고 26ha(7만8천평)에서 천년초 재배에 나섰다.

강진군 읍전면 최병진(44)씨는 지대가 높은 지역 기후특성을 살려 꽃밭이 좋고 색이 화려한 고품질의 수국(水菊)을 생산, 올해 처음으로 일본 시장을 개척했다.

◇농업도 벤처처럼 연구·개발=엔지니어 출신인 민영(42)씨는 지난 2004년 고향 영암으로 귀농해 ‘새싹채소’라는 틈새시장을 공략했다. 사업 초기 많은 실패를 거듭하다 전공을 살려 새싹을 재배하는 드립재배기와 세척기를 직접 제작했고, 농림부 친환경인증과 전남도지사의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을 받아 경쟁력을 확보했다.

한국화훼구구생산 영농조합법인 김정원

(41)대표는 사질토인 신안군 임자도의 특성을 살려 국내에서 처음으로 톨립 구근(球根)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첫 재배에 나섰으나 기술부족으로 개화율이 떨어지는 등 숱한 어려움을 겪다 일본 농가를 벤치마킹하고 수년간의 연구 끝에 톨립구근 생산기술개발에 성공했다.

곡성군 입면 정재균(44) 임마누엘 아트팜 대표 역시 지난해부터 곡성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나오는 폐열(廢熱)을 이용해 국내에서 생소한 열대작물 ‘파파야’(papaya) 재배에 뛰어들었다. 아직 토질과 일조량 등 재배 및 관리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재배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 대표는 앞으로 연중 생산시스템을 갖춰 아열대 과일을 우리

나라 경제작물로 토착화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나주시 산포면에서 컬러피망을 전량 계약 재배하는 박종석(46)씨는 난방시스템을 교체해 시설하우스 경영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난방비를 50%이상 줄였다.

◇농산물 브랜드이미지 구축=순천시 월등면 김선일(44)씨는 지난 2003년 귀농후 마을에 지천으로 피는 매화에서 농업의 ‘활로’를 찾았다. 전국 최고 품질의 매실생산과 함께 봄철 매화를 관광상품화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둔 것이다. 마을에서 생산된 매실이 유독 향기가 좋다는 것에 착안해 ‘향매실’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매년 3월 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향매실 동네 방네 매화잔치’를 열고 있다.

전국 최고품질로 인정받는 ‘와우딸기’ 역시 지금의 명성이 그냥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담양군 봉산면 박종석(48)·정해영(47) 부부를 비롯해 ‘와우딸기’ 작목회’ 농가들은 신선한 상품을 출하하기 위해 동이 트기 전에 딸기 수확작업을 하고 꺾임수정과 무농약 재배, 꽃숙을 등 수십년간의 꾸준한 노력 끝에 소비자의 신뢰를 얻었다.

이와 같이 현장에서 만난 농업인들은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도 농가소득증대와 한국 농업의 발전을 위해 남들보다 많은 노력과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열정이 곧 한국농업의 활로(活路)이자 에너지’라는 신념을 품고 있었다. <끝>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Kukje Bochunggi) hearing aids. Features a logo with a horse and rider, the slogan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Use good hearing aid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본점 (063) 227-994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총상점 (063) 227-9970, 익산점 (063) 851-2422.

A collage of various travel and service advertisements. Includes '크루즈타고 제주여행' (Cruise to Jeju), '즐거움여행' (Joyful Travel), and '신비의 삼주서도 여행' (Mystery of Samju-seo Travel). At the bottom, there are logos for '현대여행 100' (Hyundai Travel 100), 'HANTARA', and 'WOOLIA'.